



석유공사가 3월 수립한 시추 계획은 실무준비를 위한 공사 내부(안)에 불과한바,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

〈보도 주요 내용〉

10.7(월) 경향 「“대왕고래 시추 계획, 올해 3월 이미 수립해놓고...허위 사실 공표”」 보도는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 시 권향엽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석유공사가 지난 3월 시추 계획을 수립해 놓았음에도 정부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보도함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석유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시추 관련 계획(안)은 12월경에 예정된 시추를 위해 대략적인 시추위치 및 시추선 계약 등 실무 준비를 위한 내부(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금번 동해 심해 가스전이 갖는 국민경제적 의미를 감안하여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구성했고, 전문가 검토 및 검증 등을 거쳐 시추 위치 등을 잠정 확정하였습니다. 잠정 확정된 시추위치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추 시 사고예방책, 사후 복구대책 등 조광계약서상 구비해야 하는 사항을 추가 보완한 세부 시추계획을 마련한 후 시추 30일 전 산업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을 이미 수립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발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가 전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조진화	(044-203-5185)
	동해심해가스전개발 홍보TF	담당자	사무관	김태우	(044-203-5186)